

# 빛에 허덕이는 中소, 은행 돈잔치에 '부글부글'

### 광주·전남 1조184억 신규대출...중기 85.7% 높은 대출금리 최대 애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위기 극복 위해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 강조

“대출은 적자가 나고, 대출 금리는 높아져 한 달, 한 달 버티기도 힘든데요. 시중 은행들 성과급 얘기가 들리면 속이 답답합니다.”

광주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4억원의 기업대출을 받았다. 당시 4%대였던 금리는 계속해 오르다가 최근에는 6.5%를 넘겼다. 매달 상환하던 이자가 200만원에서 280만원 상당으로 크게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대출금리를 비롯해 안 오르는 게 없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힘든데,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 달성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사업을 접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대출금리 인하 등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금리 인상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직면한 것과 달리, 금융권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중소기업계의 불만도 극에 달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신규 대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조10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조7669억원)에 비해 19.33%(3416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 제2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여신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1~8월 누적 신규 대출은 3조2157억원으로, 전년(2조5389억)보다 무려 26.66%(6768억원)이나 늘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모두 더하면 올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1조184억원의 대출을 더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대출은 증가하는데, 치솟은 금리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채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계의 사정과 달리 금융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해 지난해에만 1조4000억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개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경제계의 상실감도 큰 상황이다.

실제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과 지난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금리 관련 중소기업 금융애로 조사’ 결과 금융기관 대출시 겪었던 애로로 ‘높은 대출금리’(85.7%)가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의 이자수익 기반 사상 최대 영업이익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무려 79.3%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은 51.0%였고, 부정적은 28.3% 수준이었다.

이유로는 ‘과도한 예대마진 수익’(62.2%)과 ‘과도한 퇴직금 및 성과급 지급’(22.7%)을 꼽는 등 금융권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 기업 90.3%가 현재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방법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고금리 부담완화 및 금융권 상생금융 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복수응답)으로 ‘은행의 기준금리 이상 대출금리 인상 자제’(73.7%)와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 금리 부담 완화 정책 확대’(45.7%), ‘저금리 대환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등 실효성 제고’(35.7%)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와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금융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듯 현재 중소기업계의 위기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합장 공정선거 캠페인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19일 담양 메타프로방스에 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정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효성, 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0억원 출연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협약

효성은 ESG 경영 강화와 중소기업, 농어촌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총 100억원을 출연한다고 20일 밝혔다.

효성은 대·중소기업·농어촌협력재단과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각각 중소기업, 농어촌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이다.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5개 회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각각 55억 원과 45억 원 총 100억원을 출연한다.

효성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배출과 같은 친환경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ESG 경영을 돕는다. 또 협력사 안전 및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바디캠, 에어백 조끼 등의 안전용품과 원격 검사 설비 등을 지원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등으로 발굴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플래그십 스토어 마련, 페트병-페그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통해서도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재활용 원사인 자체 브

랜드 리젠을 사용한 의류, 고효율 발열체인 탄소섬유를 소재로 한 농산물 건조기 등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농어촌 지역에 지원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5.12 (+3.91)
↑ 코스닥	788.89 (+13.27)
↑ 금리(국고채 3년)	3.677 (+0.038)
↓ 환율(USD)	1294.50 (-5.00)

##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하나로 주식거래까지

### 한화투자증권과 제휴

### 4월 30일까지 쿠폰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한화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APP)에서 간편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식매매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식매매서비스는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에서 한화투자증권 계좌 개설과 지수 및 개별 종목 시세 조회, 주식 평가금액 확인, 주식매매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과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하나로 증권계좌에 연결된 광주은행 계좌 잔액으로 실시간 주식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증권계좌로 주식매매 금액을 일일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주식 관련 토크픽과 실시간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하고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UI를 통해 누구나 주식매매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광주은행은 주식매매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쿠폰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식매매서비스에 가입한 선착순 2500명의 고객에게 ▲스타벅스 쿠폰 ▲주유·편의점 쿠폰 ▲요기요 할인 쿠폰 등 고객이 선택한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내 이벤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고객님께서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하나로 쉽고 편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식매매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김호두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연임

### “유통질서 확립 최선 다할 것”

제13대 광주전남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에 현 김호두 회장(광남레미콘 대표이사·사진)이 연임됐다.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전체 조합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정기총회 개최였고, 김호두 이사장을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정기총회까지 약 4년이다.

김 이사장은 2019년 제12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임된 바 있다. 임기 동안 건설사 갑질행위 근절, 광주권 운송사 단체교섭 타결, 대한건설자재협회의와의 단기간 교섭 등을 추진해 조합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김 이사장은 원재료 공동 구매사업 추진과 지역 권역별 공동 정보망 활성화, 공동 운송 및 레미콘 원로회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호두 이사장은 “다시 한번 조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중소레미콘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상품질의 레미콘을 수요처에 공급하고 유통질서를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받는 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